



‘이집트 왕자’ 모하메드 살라(오른쪽)가 15일(한국시간) 예카테린부르크 아레나에서 벌어진 우루과이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A조 1차전을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다. 예카테린부르크(러시아) | AP뉴시스

살라도 브라질도 악! 펠레의 저주는 과학?

매번 월드컵 때면 주목받는 입이 있다. ‘축구황제’ 펠레다. 불행히도 ‘신빙성 있는’ 예언이 아니라 더 각광(?) 받고 있다. 펠레의 눈길이 닿고, 그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선수나 나라는 예외 없이 불운에 운다. ‘펠레의 저주’로 통하는 불길한 예언이 2018러시아월드컵에서도 초반부터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펠레는 러시아 월드컵 우승 후보로 당당히 조국 브라질을 꼽았다. 이 예상이 무색하게 브라질은 첫 경기부터 단단히 꼬였다.

18일(한국시간)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벌어진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알프스의 북병’ 스위스와 1-1로 비기고 말았다. 4년 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준결승에서 독일에 당한 1-7 참패를 딛고 일어나 통산 6회 우승에 도전하는 ‘삼바군단’의 발걸음은 초장부터 무거워졌다.

펠레의 저주는 ‘이집트 왕자’에게까지 뻗었다. 모하메드 살라(리버풀)는 15일 열린 A조 1차전에서 이집트가 우루과이에 0-1로 패하는 장면을 벤치에서 얼굴을 감싼 채 지켜봐야 했다. 펠레는 4월말 살라의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 올해의 선수상 수상 직후 “축하한다. 챔피언 스리그와 월드컵에서 더 많은 활약을 보고 싶다”고 격려했는데, 공교롭게도 살라는 1개월 뒤 레알 마드리드와 치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부상을 당한 뒤 이번 월드컵 첫 경기에 결장했다.

살라의 이집트도, 브라질도 아직은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다. 펠레의 저주를 어긋나게 만들 기회 또한 충분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1966년 잉글랜드월드컵 우승국 예언(브라질 예상·실제는 조별리그 탈락)부터 시작된 펠레의 저주 역시 반세기 가 지나도록 질기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재우 전문기자



무려 10번이나 파울 당했다…네이마르 수난시대 브라질 네이마르(주저앉은 선수)가 18일 스위스와 경기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당하면서 에이스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2월 당한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특히 브라질의 19개 반칙 중 네이마르가 10번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의 활로가 막혀버렸다. 스위스 베라미(11번)가 네이마르에게 반칙을 한 뒤 경고 카드를 받고 있다. 로스토프나도누(러시아) | 신화뉴스

스토리 월드컵 | 디펜딩 챔피언의 굴욕

우승국 징크스…‘전차군단’ 독일도 예외 없다?

이탈리아, 남아공대회 조별리그 꼴찌
스페인도 브라질대회 16강 탈락 수모
독일, 첫 판부터 멕시코에 발목 ‘붙인’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독일이 18일(한국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18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북중미의 강자 멕시코에 충격적인 0-1 패배를 당했다. 비록 멕시코가 FIFA 랭킹 15위이자 7회 연속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강호이긴 해도, 디펜딩 챔피언 독일의 패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변임에 틀림없다. 전 세계 외신이 앞 다투며 멕시코의 반란을 대서특필한 가운데 독일 내에서도 자국대표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같은 E조에 속한 한국으로서도 결코 달갑지 않은 결과다.

독일의 패배가 유독 눈길을 끄는 이유는 디펜딩 챔피언의 몰락이라는 월드컵의 저주가 3회 연속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선 이탈리아,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선 스페인이 전 대회 우승국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두 나라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고작 첫 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조기탈락을 점친 전문가들과 도박사들이 당시에는 사실상 전무했던 만큼 이제 독일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탈리아의 몰락

‘아주리군단’ 이탈리아는 남아공월드컵에서 2무1패로 16강행에 실패했다. 이탈리아는 4년 전 독일대회를 비롯해 월드컵 통산 4회(1934·1938·1982·2006년) 우승에 빛나는 전통의 축구강국이지만, 남아공에선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꼬였다. 남미의 북병 파라과이와 1-1로 비긴 뒤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로 돌아온 뉴질랜드와 다시 1-1로 비겼다. 결국 조별리그 최후전 상대 슬로바키아에는 2-3으로 저조 최하위의 수모를 당했다. 이탈리아의 불운은 남아공월드컵으로 끝나지 않았다. 브라질월드컵에서 1승2패로 2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신 데 이어 러시아월드컵 본선에는 아예 오르지도 못했다. 러시아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에 1무1패로 밀려났다. 1958년 스웨덴월드컵 이후 60년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로, 월

드컵 본선 연속 진출도 14회로 마감됐다.

●스페인의 굴욕

브라질월드컵에선 ‘무적함대’ 스페인이 디펜딩 챔피언의 굴욕을 재현했다. 남아공월드컵 우승과 유럽선수권대회 2연패(2008·2012년)를 포함해 브라질에선 메이저 대회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으나 네덜란드와 치른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무참하게 깨졌다. 로빈 판 페르시와 아르연 로번에게 각각 2골씩을 내주며 1-5의 치욕적 패배를 당했다. 이어 2차전에서 칠레에 0-2로 진 뒤 3차전 상대 호주만 3-0으로 잡았다. ‘티키타카’로 대변되는 스페인의 현란한 공격축구가 브라질월드컵에선 완전히 실종됐다.

●프랑스·이탈리아·브라질도 당했다!

자국에서 열린 1998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2002년 월드컵에선 단 한 골도 못 넣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프랑스는 개막전에서 세네갈에 0-1로 밀미를 잡힌 데 이어 우루과이와 0-0으로 비기고, 다시 덴마크에 0-2로 저 1무2패로 무너졌다. 디펜딩 챔피언이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보파리를 뺀

최초의 사례다. 프랑스에 앞서서는 1950년 브라질월드컵의 이탈리아(1승1패), 1966년 잉글랜드월드컵의 브라질(1승2패)이 전 대회 우승국임에도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해 단단히 체면을 구겼다. 이탈리아와 브라질은 이 같은 흑역사와는 상반되게 각기 1934·1938년 대회, 1958·1962년 대회에서 2회 연속 월드컵을 품기도 했다. 지금까지 ‘유이한’ 월드컵 2연패 사례다.

●2002년 우승국 브라질은 예외

2002년 한·일월드컵에선 8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호나우두를 앞세워 브라질이 우승했다. 브라질은 4년 뒤 독일월드컵에서 비록 2연패에는 실패했지만, 8강까지 올라 체면치레를 했다. 브라질은 조별리그를 3전승으로 통과한 뒤 16강전에선 가나를 3-0으로 완파하는 등 기세등등했다. 그러나 8강 상대 프랑스에 0-1로 저 2연패 야망이 무산됐다. 1998년 우승국 프랑스부터 2010년 우승국 스페인까지 디펜딩 챔피언들이 줄줄이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들이키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우승국 브라질만은 예외인 것이다. 과연 독일은 어떻게.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선수 흠쳐온 이탈리아…제2회 월드컵 촌극

월드컵 퍼스트 히스토리 ③

제1회 월드컵의 성공으로 FIFA의 회원국이 50개 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32개 나라가 제2회 월드컵 참가신청을 했다. 1932년 FIFA는 이탈리아에게 대회 개최권을 줬다. 당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파시스트들은 월드컵을 통해 제국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월드컵 참가를 결정했지만 남미는 반대였다. 제1회 대회 때 유럽의 비협조를 잊지 않았던 우루과이는 불참을 선언했다. 이 결정으로 월드컵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전대회 우승팀이 다음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1회 대회 결승전 상대였던 아르헨티나는 우수한 자국 선수들의 해외유출을 우려해 아마추어 선수 중심으로 파견했다.

FIFA는 처음으로 지역예선을 열어 본선출진국을 확정했다.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열린 지역예선 경기는 1933년 6월 11일 벌어진 스웨덴-에스토니아 전이었다. 스웨덴이 6-2로 이겨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개최국 이탈리아는 본선진출을 보장해줬지만 굳이 지역예선 참가를 고집했다. FIFA는 혹시나 개최국이 출전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상대를 약팀으로 골랐다. 이탈리아는 FIFA에 의해 선택받은 그리스를 4-0으로 이겼다. 일방적인 1차전 결과에 화난 그리스가 2차전을 포기해버렸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처음으로 월드컵 지역예선에 참가했다. 아시아 대표는 팔레스타인이었다. 아프리카 대표 이집트와 본선 진출권을 경쟁했다. 이집트가 7-1로 승리하며 아프리카국가 최초의 월드컵 본선진출에 성공했다. 16개국이 참가한 제2회 이탈리아 월드컵 본선은 1934년 5월 27일

부터 6월 10일까지 이탈리아의 8개 도시에서 열렸다. 1라운드 매치업은 이탈리아-미국, 브라질-스페인, 헝가리-이집트, 오스트리아-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 네덜란드-스위스, 아르헨티나-스웨덴, 독일-벨기에로 꾸며졌다. 첫 경기에서 진 팀은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잔인한 경기방식이었다.

무솔리니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 우승을 노렸던 이탈리아는 아르헨티나 국적의 선수를 흠쳐오다시피 하면서 탄탄한 전력을 꾸렸다. ‘오리온디’로 불리는 이들은 초대 대회 준우승의 주역 루이스 몬티, 1928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라이몬도 오르시, 아르틸로 디마리아, 엔리케 과이타 등이었다. 다른 나라가 부정선수라고 항의했지만 이탈리아는 “그들이 이탈리아를 위해 죽을 수 있으면 이탈리아를 위해 축구도 할 수 있다”면서 출전을 우겼다.

개최국 불구 지역예선 참가 고집도 이집트, 아프리카 첫 본선 진출 영예

제2회 대회는 페넬티크 규정이 확립됐다. 제1회 대회는 심판마다 페넬티크의 기준이 달라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이 기준에 따라 나온 페넬티크를 처음 실패한 선수가 나왔다. 브라질의 바우데마르 지 브리투였다.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 페넬티크를 찼으나 스페인의 GK 자모라가 두 손으로 편칭했다. 결국 스페인이 3-1로 승리하고 8강전에 진출했다.

월드컵 본선에 단 한차례도 빠진 적이 없는 브라질은 수많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한 경기만 하고 돌아갔다. 조국에 많은 실망을 안겼던 바우데마르 지 브리투는 10여년 뒤 브라질 축구에 사죄했다. 스카우트로 변신해 에드송 아란치스 두 나시멘트라는 어린 선수를 빈민가에서 발굴해냈다. 그 선수는 나중에 펠레라는 애칭으로 브라질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계속〉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